

별을 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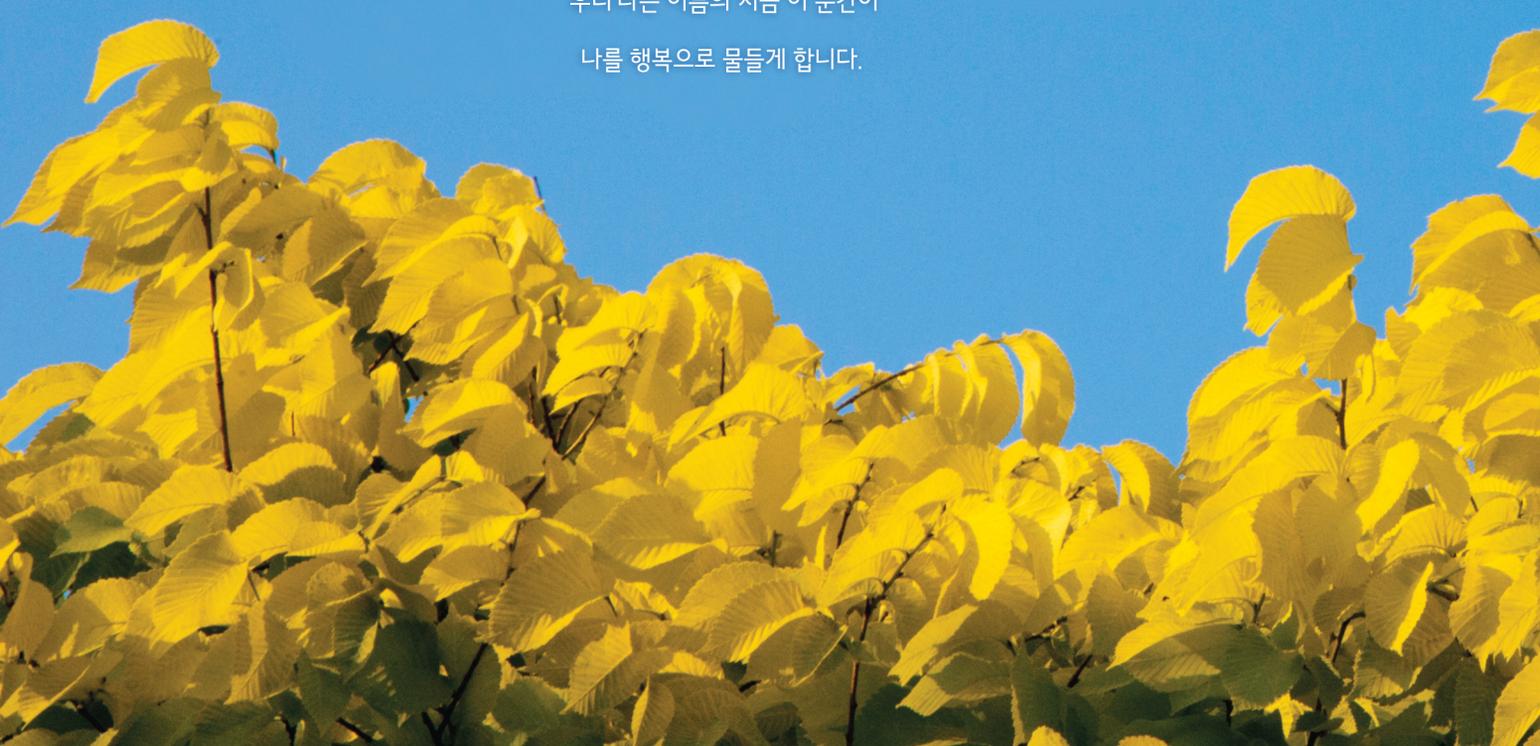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AUTUMN vol. 006



물들다

깊고 진한 향이 스며드는 계절,
당신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살짝 웃습니다.
마음을 다한 진심을 건네고,
함께 울어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까닭입니다.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당신과 나를 잇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지금 이 순간이
나를 행복으로 물들게 합니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AUTUMN vol. 006

별을 쏘다

발행일 | 2015년 10월 31일 (통권 제6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강현지, 김도형, 김유리,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수영, 황지현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T. 051-623-1906)

표지 작가 | 조주홍

- 02 **Photo Essay**
물들다
- 04 **Company Song**
마음을 나누는 앙상블
- 06 **현장 24시**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책임진다!
- 10 **Safety 365**
내가 뿌린 안전 씨앗 무재해로 꽃 피운다
- 12 **Growth Record**
좀 괜찮은 신입사원
- 16 **Social Contribution**
향기 품은 바람이 분다. 이런 날엔 일일호프로 가자



- 18 **Education**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리더에게 배우다
- 22 **Interview**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구나이다
- 26 **Column**
기업은 무엇으로 성장 하는가
- 30 **Healing Travel**
현대에서 근대를 만나다. '빛과 그림자'의 도시 군산
- 36 **Zoom In**
밟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갑시다 - 2탄
- 38 **1:29:300**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 40 **Car Life**
Good Idea, Good Invention, Good Safety
- 42 **Winning PT**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다!
- 43 **Communication Guide**
당신의 소통 유형, 진단해드립니다
- 44 **Challenge Sungwoo**
다시 한번, 바다 위를 달리다
- 46 **Sungwoo Family**
힐링하고 가자!
- 50 **Issue & News**

성우하이텍 사가(社歌)

마음을 나누는
양상블

사가를 부르며
동료의 눈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행복합니다.



♩=8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열 린 맘으로 모—두 하—나 되어 서 로 사랑하며 어께 는 사
 랑 과 믿음 으—로 의—지 하며 함 께 마는 성우 되어 요 성
 우 하이텍 한 마음 으로— 감 동을 만들—어 가는 곳 성
 우 하이텍 한 가 쪽 으—로 웃 음과 행복— 넘 치는 곳 더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멀 리 We
 are the one 모 두 손 잡 고 세 로 온 도 악 을 꿈 꾸 며 성우 하이
 텍
 우 리 는 모두 성—우 의 꿈 과 미 래 희 망 과 용 기 가 넘 치 는 열
 정 과 함 께 라—면 다—가 오 는 미 래 는 우리 성우 의 것 성
 우 하이텍 성 공 을 향 예— 세 로 온 도 전— 펼 치는 곳 성
 우 하이텍 세 계 를 향 예— 는 부 신 위 상— 높 이는 곳 더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멀 리 We
 are the best 모 두 다 함 께 세 로 온 도 악 을 꿈 꾸 며 성우
 하이 텍





星宇科技 社歌

敞开胸怀相拥在一起，我们互爱互助
 用爱和信念成为齐心协力的星宇人
 星宇科技，同一颗心创造感动的家园
 星宇科技，充满欢笑和幸福的大家庭
 更高，更低，更快，向远方展翅飞翔
 We are the one,
 共同携手超越梦想的星宇科技

我们是星宇的梦想和未来，充满希望和勇气
 满怀热情，不久的将来必将属于星宇
 星宇科技，走向成功不断挑战的舞台
 星宇科技，面向世界创造辉煌成就的舞台
 更高，更低，更快，向远方展翅飞翔
 We are the best,
 团结一心超越梦想的星宇科技

ENG. SUNGWOO HITECH Company Song

BECOMING THE ONE WITH OPEN HEARTS,
 WE CARE FOR AND LOVE WITH EACH OTHER,
 COUNTING ON EACH OTHER IN FAITHER AND LOVE,
 SUNGWOO'S GONNA BE THERE FOR YOU,
 SUNGWOO HITECH, WITH ALL OF US,
 WHERE'S MAKING GREAT IMPRESSIONS,
 SUNGWOO HITECH, IN ALL OF US,
 WHERE WE ARE HAPPY AND WE SMILE,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ONE HOLDING OUR HANDS,
 DREAMINIG TO FLY HIGH UP SUNGWOO HITECH,

WE ARE THE PROMISING FUTURE OF SUNGWOO,
 FULL OF HOPE AND FULL SPIRIT,
 IF THERE'S A PASSION IN ALL OF US,
 GREAT FUTURE WILL BE IN US,
 SUNGWOO HITECH FOR US TO SUCCEED,
 WHERE WE CAN TRY SOMETHING
 SUNGWOO HITECH FOR US TO BE
 IN THE WORLD PLACING US UP HIGH,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BEST GOING TOGETHER,
 DREAMING TO FLY HIGH UP S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책임진다!

자동차 차체 부품 핵심 기술의 요람, R&D본부

R&D(Research and Development)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성우하이텍 R&D본부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되어왔다.

R&D본부는 끝없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며 모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과 재도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고도화된 기술력을 구축해가고 있다.

R&D본부가 써내려온 20년의 기록은 연구원 한 명 한 명의 뜨거운 땀이 배어있기에 더욱 빛난다.



독자적인
설계 기술 확보,
선행 기술 연구
개발의 첨병

성우하이텍 기술연구소(R&D센터)는 1994년 설립되었다. 국내 차체 업계에서는 최초였다. 설립 당시만 해도 완성차 업체가 아닌 차체 회사에서 굳이 독립된 연구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는 분위기가 업계 내에서는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근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성우하이텍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R&D본부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설계 기술을 갖추고 선행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R&D본부 초창기부터 ‘롤포밍(Roll-Forming)’ 기술 국산화와 ‘TWB 레이저 용접’ 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첨단공법을 개발해 생산에 접목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탁월한 기술력으로 차체 경량화와 원가절감, 품질 향상을 꾸준히 추구해온 R&D본부는 최근 ‘초고장력강판 가공’ 기술 개발에 성공을 거두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해외 고급 차량의 차체 분해·분

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까다로운 시험조건 하에서 수많은 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록들은 선진 기술 개발과 독자적인 설계 기술 확보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어진 기술력은 ‘국산 신기술 KT 마크 획득(2000)’, ‘IR 장영실상 수상(2002)’, ‘부품 소재 기술상 수상(2003)’,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인증(2013)’, ‘현대 기아자동차 R&D Tech Festival 우수협력사 부문 수상(2014)’, ‘제50회 발명의 날 수상(2015)’ 등의 굵직한 수상내역과 500여 건이라는 특허 등록에서도 검증된다. R&D본부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내 기관이나 해외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기술 개발 및 국책과제를 통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양산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신소재를 적용해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첨단 소재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미래에 대비한 R&D를 강화하고 있다.





20년 동안

R&D본부는 연구 개발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과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선봉대가 되었다.

R&D본부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수평적 소통과
자율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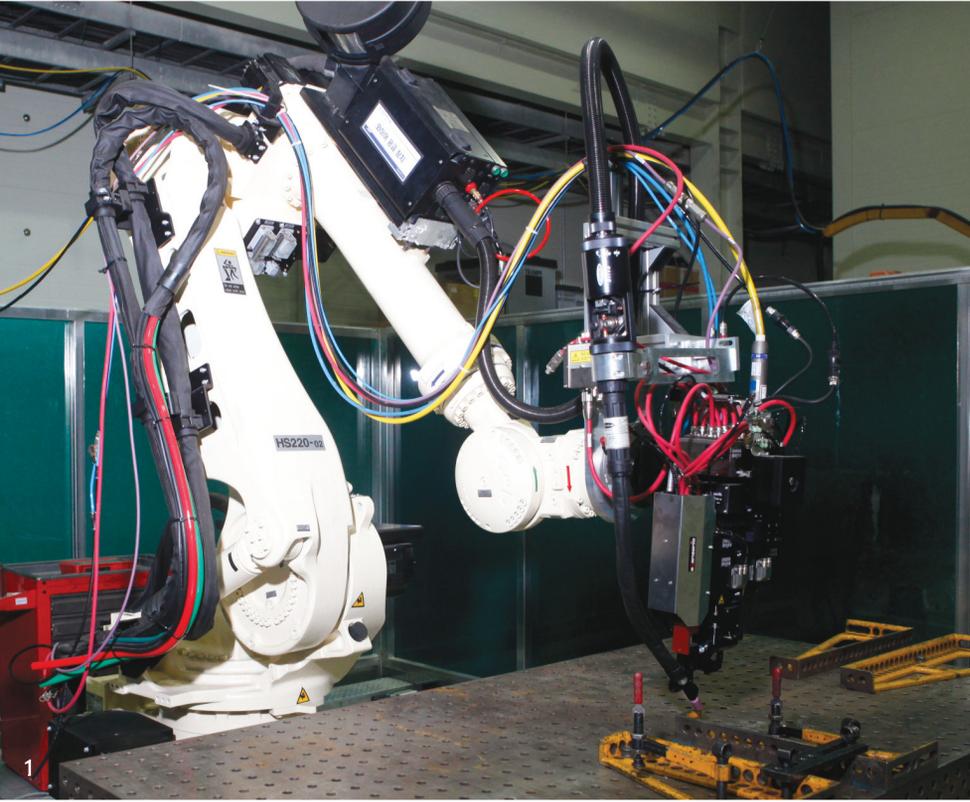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현재의 성우하이텍을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토대가 된 R&D본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연구 개발에만 매진해온 R&D

본부는 2014년 부산 정관에서 경남 서창으로 이전하며 본사와 더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연구 설비를 확충했고 체계적인 시험동까지 갖추었다. 시험동은 시험(Test Section), 접합(Joining Section), 성형(Forming Section)의 3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범퍼와 차체 부품에 대한 충돌 시험장을 비롯, 완성 부품에 대한 기능 시험 장비들을 갖춘 것도 차체 업계에서는 최초이다.

올해 R&D본부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다. 직제개편이 단행되

고 본부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기술연구소도 R&D본부로 개편된 것이다. 동시에 R&D본부에서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직급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대신 부장, 차장, 과장까지는 책임 연구원, 대리와 사원에게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부여했다. 모두 같은 연구원이라는 인식으로 수평적 소통과 자율성,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면 기술의 원천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나리라는 기대도 실렸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공법혁신2팀이 R&D본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팀이니만큼 현장의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R&D에 반영하기 위해 단행된 조직개편이다. 향후 공법혁신2팀이 현장과 R&D본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는 곧
사업화로
이어져야 한다”

수평적 소통을 자랑하는 R&D본부는 여타 사업장보다 자율적인 모습이다. 팀원 개개인의 개성과 자부심이 강하지만 동시에 공고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활발한 의견 교류와 서로에 대한 배려 덕분이다.

이 같은 R&D본부만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설립 당일부터 지금까지 R&D본부장으로 연구 개발을 진두지휘해온 이문용 사장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이다. 연구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결재를 하고 애로점을 듣는 등 스스로없는 소통리더십으로 R&D본부의 어제와 오늘을 이끌었다. 이문용 사장의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연구는 곧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는 R&D본부가 지향해온 가치가 드러난다.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지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회사의 가치와도 맥이 통한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R&D본부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치열한 노력 끝에 탄생한 것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간 회사는 R&D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연구 개발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선봉대가 되었고, R&D본부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R&D본부의 도전과 도약은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연구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은 지난 20년의 시간과 성과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

내가 뿌린 안전 씨앗 무재해로 꽃 피운다

안전사고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재해를 부른다.

현재의 안전 상황이나 상태에 만족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행복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 결의문



우리 성우인은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무재해 달성의 기수가 된다.

하나. 우리는 성숙된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원이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자신의 안전이 가정의 행복임을 명심하고
지율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9월 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 안전 365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결의대회는 성우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환경팀에서는 안전교육, 지게차 안전 대책, 협력사 안전 보건, 화재방호시설 점검, 근로자 건강 검진, 위험물 관리 수칙 등 '안전, 소방, 보건, 환경'의 각 부문별 안전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환경팀은 각종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재해율 감소가 아닌 '재해를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안전사고 절감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이명근 회장은 “나의 생명, 나와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에 치우쳐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안전불감증을 경계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안전구호인 ‘성우하이텍 무재해 Let’s GO!’를 힘차게 외치며 강당에 모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참석한 성우인들도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문’을 다 함께 낭독하고, 무재해 현수막에 각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새겨 넣으며 각오를 다졌다. 성우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돼 왔다.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우인들의 안전제일 의식은 조금씩 낮아지는 재해율에서도 알 수 있다. 무재해 달성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전의식을 다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안전은 무엇보다 생활화와 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 회사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나와 가족, 동료와 회사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매년 9월 1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고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해, 성우인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도록 할 계획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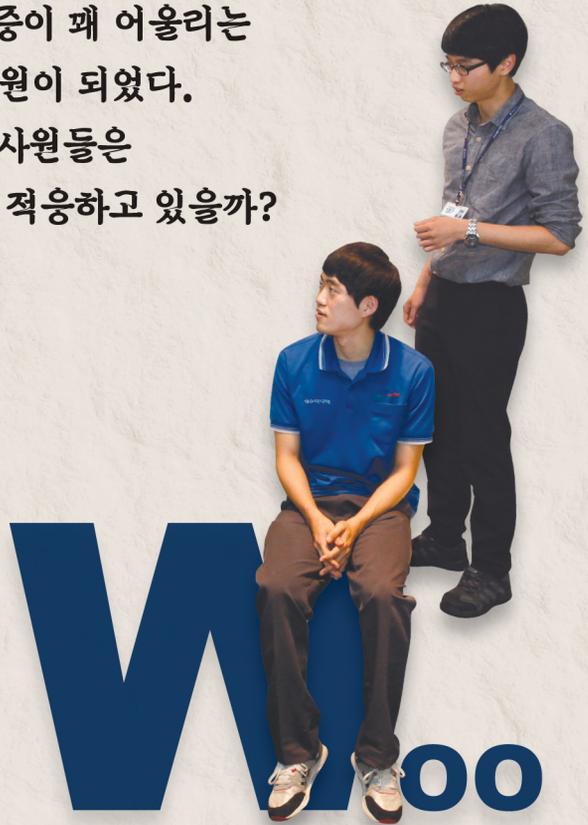


3

1“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을 실천합시다!” 2 강당을 가득 메운 안전결의 선서 3 무재해 현수막에 이름을 새기면서 결의를 다지는 성우인들

지난해 12월,

성우하이텍 취업문을 두드린 미생(未生)들은
어느새 사원증이 꽤 어울리는
1년차 사원이 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회사에 적응하고 있을까?



성우하이텍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후견인 제도'를 인턴 과정에 포함했다.
'후견인 제도'는 대리급 이상 선배 사원과 신입사원이
조를 이루어 12주간 활동하는 제도이다.
또 신입사원 인턴 과정에는
업무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입사원 교육, 현장 실습 등이 마련됐으며
공정책임자 인턴들은 별도의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새 훌륭한 성우맨으로 거듭난 신입사원들.
우리도 모두 한때 미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 적응기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자.



저는 올해 1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 팀은 해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저도 오는 11월에 멕시코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해외 출장이라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다시금 군대 간다는 느낌으로 잘하고 오겠습니다. 입사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우하이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제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고,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신차품질반 허진용 사원

좀 괜찮은 신.입.사.원



작년 12월 23일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장 라인부터 시작해 깔끔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턴을 수료한 이후에는 더욱 소속감이 생겼고 나도 성우하이텍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고향이 수원이라 타지 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선배들이 업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제2의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정QC 박진형 사원

입사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준오 과장님과 함께한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인턴 수료 과정 중의 하나였어요. 저는 여중, 여고를 졸업해서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아버지 같은 정준오 과장님을 만났고, 힘들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준오 과장님은 지금도 든든한 제 멘토이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저희 팀은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재밌게 웃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원가2팀 김 조 은 사원



미생에서 완생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저는 대구가 고향이라 지금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 기간 때, 저희 부서에서 집들이 겸 제 원룸에 놀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 대한 선배들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팀원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퇴근 후 시간이 자유로워 좋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기계발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업무 능력을 높여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작1팀 현 승 대 사원





입사 전, 체코 오스트라바 공단에서 처음으로 성우하이텍 체코법인에 왔어요. 그때부터 성우하이텍에 입사하고 싶다고 결심했죠. 이후 한국에 돌아와 현대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날 정기동 대리님을 비롯해 성우하이텍 부스에 계셨던 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성우하이텍의 기업문화가 저랑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체코에서의 다짐 이후 꼬박 1년 뒤에 입사에 성공했어요.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사노무팀 **최준환** 사원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 적응기를 들어보았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정보사업본부에서 산행을 갔었어요. 그때 장기자랑을 준비했는데 산행 전날까지 연습실을 빌려 춤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딜 가더라도 사랑받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따듯하고 정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배우고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IT지원팀 **이성은** 사원

향기로운 바람이 분다
이런 날엔 일일호프로 가자

| 제13회 그린성우 나눔한마당 |

천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할 무렵, 지난해에 이어 훈훈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있다.

바로 성우하이텍 일일호프로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이다.

성우인들이 펼치는 향연에는 언제나 마음을 감싸는 온기가 스며있다.





성우하이텍 열린마음 이웃사랑 나누기 일일 호프



여기는 일일호프가 열리는 정관 중앙공원! 행사 시작 전부터 성우인들은 술선수범하여 음식을 준비했다. 어느새 공원에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 든다. 주민들도 기웃거리다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자녀들과 손을 꼭 잡고 참석한 가족들이 많다. 성우가족들은 물론 관계사 가족들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돌이서 라라라~'

일일호프의 시작을 알린 시각은 오후 6시 30분! 사회자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색소폰연주자 최민호 군의 색소폰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진다. 이어 롯데디자인즈 치어리더들의 축하 공연이 차례로 펼쳐졌다.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의 등장으로 공원은 술렁술렁거렸다. 쿵쿵 울리는 비트에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장기자랑은 사내협력사 김갑용 대표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이어 금형개발사업본부의 복면가왕들이 등장해 신명나게 노래판을 벌였다. 그 노래판을 이어받은 재경사업본부 여직원들은 탬버린을 들고 나서 흥을 돋웠다. 한바탕 환호와 박수

소리에 섞인 함박웃음이 공원을 뒤덮었다. 춤을 추며

등장해달라는 사회자의 짓궂은 요구에 서슴없이 어깨춤을 들썩이며 무대에 등장한 이문

용 사장과 김근수 노조위원장의 러브샷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며 일일호프는 어느덧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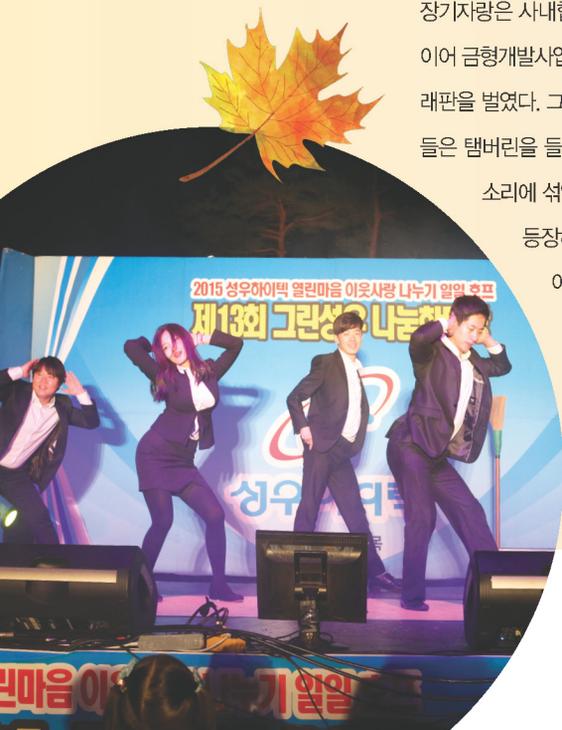
'오빠 강남스타일'

말춤 실루엣이 무대를 장악했다. 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성우하이텍 임원진들. 임원들도 오늘날만큼은 숨어있던 춤 실력을 뽐내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에 질 수 없다는 듯 지사 사업부 상큼한 신입사원들의 노래와 생산구매사업본부 두 남사원이 호흡을 맞춘 발라드가 촉촉한 가을밤을 물들였다. R&D본부에서 준비한 '흥부가 기가 막혀'는 앉아 있던 성우인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했다.

"깽~!" 비명 같은 호응을 받은 주인공은 인사정보사업본부 댄스팀이다. 정기동 대리를 필두로 구성된 댄스팀은 JYP가 오기라도 한 듯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아나니 다들까 올해의 우승은 인사정보사업본부 댄스팀에게로 돌아갔다. 2등은 가을밤을 촉촉하게 적신 생산구매사업본부에게, 3등은 흥이 넘치는 재경사업본부 여직원들에게 주어졌다.

'성우하이텍 Let's Go!'

어느새 오후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제13회 그린성우 나눔마당'은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깊어가는 가을 밤에 대한 아쉬움과 행복한 웃음들이 가득했다.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다는 것은 더 많은 웃음을 더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름답고 유쾌한 밤이었다. 



2015 승진자 교육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리더에게 배우다 '경영전장(經營戰場)에서 만나는 이순신 리더십!'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년) 9월 16일,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명량(鳴梁: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에서 수백 척의 일본 수군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렇게 지켜온 역사는 흐르고 흘러 정확히 418년이 지난 2015년 9월 16일, 올해의 성우하이텍 승진자들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경영전장'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크게 승리하는' 내일을 준비한다. 그 열정이 뜨겁다.



1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한산도 제승당에서 참배하며 살아있는 충무공의 정신을 새긴다. 2 이순신 장군이 서 있었을 수루에서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다.



2

2015년도 승진자 교육이 진행된 경남 통영 일대는 바다 쪽으로는 한산도를 내다보며 내륙에는 세병관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한산도는 패색이 짙어가던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의 큰 승전보를 올려 전쟁의 전환점을 만든 곳이며,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뭍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는 의미의 세병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육지인 통영으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객사 건물이다. 통영은 '경영전장에서 만나는 이순신 리더십과 혁신 전략'이라는 이번 교육의 주제를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다**

승진자 교육은 승진에 대한 축하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 승진한 사무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각 1박 2일의 일정으로 두 번의 차수(9월 16일~17일, 21일~22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우리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는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과 위기 대처능력을 배워 회사의 리더로서 필요한 자세와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발해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9월 16일, 1차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통영 마리나리조트 강당은 여유와 기대가 공존하였다. 첫 프

로그래밍 ‘승진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으로 ‘경영전장에서 만나는 이순신 리더십과 혁신 정신’, ‘한산도와 세병관 투어’ 등으로 1일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2일차에는 요가로 몸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리더십 워크숍 ‘이순신으로부터 배우는 경영의 지혜’, ‘승진자가 갖춰야 할 변화와 갈등 관리’ 특강으로 이어졌다.

성우하이텍을 이끌어가길 승진자들이 왜 이순신 리더십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주제인지 공감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핵심역량은 3요소로 요약된다. 일관성(신상필벌), 전문성(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실행능력(이는 것, 가진 기술을 행하는 능력)이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들으며 그러한 리더십의 요소를 있게 한 철학에 깊은 공감을 하였다. 바로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다. “충(忠)이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장군의 한 마디가 리더로서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왜군의 잔당이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망갈 배를 남겨둔 일화는 완벽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뜻하고, 판옥선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격꾼(전투에 임하지 않고 노만 저었던 수군)들의 공을 크게 돌린 일화는 현장의 작업자를 귀하게 여김을 뜻한다. 이미 이순신 장군은 현대적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3 '비전'을 외치며 팀워크를 다진다. 4 추천 학습도서 '경쟁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는 교육 참가자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5 승진자들은 교육과정을 마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경영전장의 장수들이 되어 포부를 다진다.





**진정한 리더에 대해
생각하다**

한편, 모든 참가자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기다린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일명 캐터머랜 (Catamaran, 쌍동선)이라 불리는 38피트의 세일링 요트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 '한산 대첩', 그 격전의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요트를 즐겼지만 격전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숙연히 바다를 대하였다. 한산도에 내려 프로그램을 이어간 승진자들은 박정욱 강사의 재치있고 해박한 설명으로 그 옛날 리더로서 감당하기 힘든 막중한 책임을 가까이 떠안았던 장군의 모습을 대면하고 경건히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법계획팀 이준섭 부장은 “승진은 기쁘지만 두려움이 더 큼니다. 지금부터는 성과 그 이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과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른 이유는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공감하고 소통했기 때문이라는 걸 교육을 통해 알았습니다.”라며 리더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했다.

**2015년 경영목표
'창의·혁신·소통'의
의미를 깨닫다**

이순신 장군은 누구나 존경하는 위인이다. 이 점에서 오히려 진부한 주제로 인식되어 그분의 왜란중 업적만 전설처럼 회자되고 인간적 고뇌나 인품, 장군의 철학과 리더십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4백여 년 전 조선 땅을 왜군으로부터 지켜내었던 장군의 진면목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불멸의 교훈을 되살리는 큰 배움의 장이 되었다. 참가한 승진자 교육생들은 우리 회사의 2015년 경영목표인 '창의·혁신·소통'에 이순신 장군의 철학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번 커리큘럼이 승진자의 리더십 교육 과정으로 매우 뜻깊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승진자 교육 과정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순신 전도사 40년, 김종대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구국의 위인이 있다면 누구일까?

남녀노소 이구동성으로 손꼽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순신 장군일 것이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조 임금에게 고한 이순신 장군의 '신에겐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고연은 진정한 충정의 표상이요, 애국의 정점이었다.

그런 이순신 장군을, 역사학자도 정치 지도자도 아닌 사람이 40년 가까이 흠모하고 존경하며 연구해왔다.

김종대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주인공이다. 왜 이순신 장군인가? 그에게 물었다.

이순신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것은 '운명'이었다

“27살 군법무관 시절, 군법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서점에서 우연히 노산 이은상 선생이 쓴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두어 장 넘겼을 뿐인데, 이순신 장군은 어느새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이순신’ 연구에 몰두한 김종대전 재판관. 그에게 언제부터가 ‘이순신 전도사’란 별칭이 붙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순신은 늘 김 전 재판관 곁에 있었다. 때론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고, 때로는 지혜를 전하는 현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법관으로서 어려운 판단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머릿속의 이순신 장군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김 전 재판관은 그만큼 이순신 장군을 깊이 연구하면서 흠모와 존경을 품고 살았다. 200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 ‘이순신 평전’까지 냈다.

그는 2012년 9월 재판관에서 퇴임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 정신’을 알리며 인생 2막을 시작했다. 한때 영화 <명량>이 공전의 히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 영상보다 더 오래 남을 내용을 막힘없이 쏟아내며 ‘이순신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을 그리워하는가?

김 전 재판관이 평소 강조하는 ‘이순신 정신’의 핵심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이다. 즉 공(公)적인 일을 앞세우고 사(私)적인 일은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원칙을 바꾼 적이 없었다.

자신만의 정신적 가치는 공(公)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사가 공이며, 국가를 공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순신의 공은 국가였다. 자기 전부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공이었다.

선공후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심(私心)을 버릴 때 가능하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과 이순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전공의 우열을 가리던 상수공법(上首攻法)은 싸움터에서 배어 얻은 적군의 머릿수로 가름하였다. 원균과 수하 장졸들은 오직 적의 수급을 취하는 데 더 열중했다. 이에 반해 이순신은 “적군의 목을 베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적을 죽이기만 하면, 힘써 싸운 자를 제일의 공로자로 인정하겠다.”라며 적을 무찌르는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운다면 국민이 받드는 지도자는 될 수 없다. 김 전 재판관은 이는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회사의 리더는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앞세워야 한다. 철저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조직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남 창원 출생으로 김해에서 성장한 그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공군법무관을 시작(1974년)으로 30여 년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법관으로 재직.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했다. 현재 이순신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총무공 이순신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저서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이다 (2012, 2014, 2015)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상, 하 (2014)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 (2004)
 이순신 평전 (2002)

사랑하는 마음은 통(通)한다

김 전 재판관은 기업의 경영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소통을 하나의 테크닉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몇몇 기업들에서는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회의, 생일 챙겨주기, 저녁 함께 먹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순신 공부를 40년간 했는데, 이순신의 큰 가치 네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힘으로 사는 자력(自力), 빠르게 사는 정의(正義), 정성(精誠)스럽게 사는 정신, 사랑(愛)이 충만해서 사는 삶, 이 네 가지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 회로를 이루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회로를 통하면 이순신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김 전 재판관은 이순신 장군의 소통에는 인간적인 파스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컨대, 병사들이 전투를 치른 뒤 군영으로 돌아오면 폭 쉬게 하거나 잠을 일찍 재웠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다음 전투를 잘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밤중에 보초를 서던 병사가 졸고 있으면 그 병사를 대신해서 새벽까지 보초 서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상을 당한 부하가 갈 길이 멀어 가지 못하면 자신의 말도 내어주었다. 이순신의 소통,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은 테크닉 혹은 프로그램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순신의 내면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이순신의 정신을 찾고, 흔히 말하는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 그 뿌리까지 가면 사랑이 보인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 없는 사랑으로 부하를 보듬고, 품어주는 것이 이순신의 소통법이었다. 리더가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가 리더를 사랑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나서 소중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랑이 가면 사랑이 온다.’ 김 전 재판관은 이순신의 네 가지 가치로 물들어 갈 기업과 사회를 그리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치료제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과 부산, 여수에 이순신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이순신 정신'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이순신 관련 강의를 한 것만 수십 차례. 최근에는 정치, 법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이순신 전도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2기 강의에 한창이고, 여수는 1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순신 아카데미는 이순신의 삶을 공부하고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아카데미를 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을 버려둔 채 도망친 것은 그들이 사리사욕만을 채워왔기 때문이라는 김 전 재판관은 이순신 정신을 가치가 전도된 병든 세상을 바로잡아 줄 치료제로 여기고 있다. 이순신 정신을 약재로 복용하지는 것이다. 이 약재가 양극화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김 전 재판관은 그 약을 제조하는 곳인 '이순신 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순신을 '우리 민족의 참스승'으로, 이 땅의 사회 지도층과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하는 그는 특히 해양수도인 부산의 북항에 이순신 기념관을 설립하고 그 부설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설화한다. 이 계획이 그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김 전 재판관. 40여 년간 이순신과 동고동락한 그는 이순신 정신을 통해 물질적 가치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Admiral Lee Soon Shin

한산 바다 거북전선
적의 탐욕 응징했고
명량 바다 열두 전선
배달 불꽃 되살렸네.

노랑 바다 차가울 제
하늘 두고 맹세했네.
이 원수를 다 갚으면
아무 여한 없겠다고.

영웅으로 태어나서
성웅으로 돌아가니
거룩하다 님의 생애
죽어도 살았도다!

- 김중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 '명량해전'

김중대 전 재판관은 역대 1위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명량'에 자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한민 감독은 명량해전을 소재로 영화를 기획하던 중 김 전 재판관의 책을 읽게 되었다. 김 감독은 김 전 재판관이 지은 시(時)를 책상 앞에 붙여 놓고 '명량'을 찍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10배 이상의 적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은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미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사진 출처: 네이버영화

광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정보화시대를 예견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건만 어느새 정보화시대가 가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범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보는 이미 범용화된 지 오래다. 통신 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확산, 정보 매체의 다양화로 이제 더 이상 정보의 독점이 불가능하다. 검색 엔진, 블로그, 전문 정보 포털, 소셜 네트워크(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구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지식도 마찬가지로. 학자,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 기

관, 공공 기관 등 다양한 지식 생산자로부터 수많은 서적과 전문 보고서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언론 또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 깊이 있는 심층 분석 기사를 양산해 낸다. 지식의 홍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농경시대의 핵심 자원은 토지와 가축이었다. 산업 시대에는 석탄과 석유, 철강이 핵심 자원이었으며, 정보화시대에는 그것이 정보와 지식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희소성을 잃고 범용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창의성'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창조경영'을 부르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야 당연히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직 내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자율과 소통, 그리고 도전이 장려되는 문화적 토양이 없으면 아이디어의 꽃을 피울 수 없으며, 설령 아이디어의 꽃이 피더라도 성과의 열매를 수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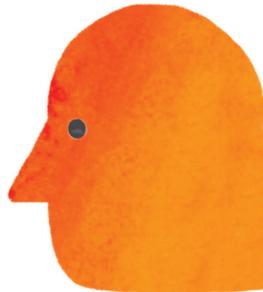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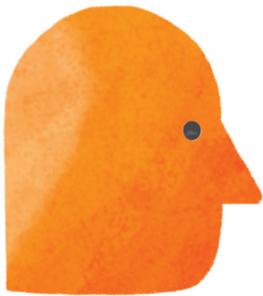


기업은 무엇으로 성장 하는가



“조직 내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자율과 소통, 그리고 도전이 장려되는
문화적 토양이 없으면 성과의 열매를 수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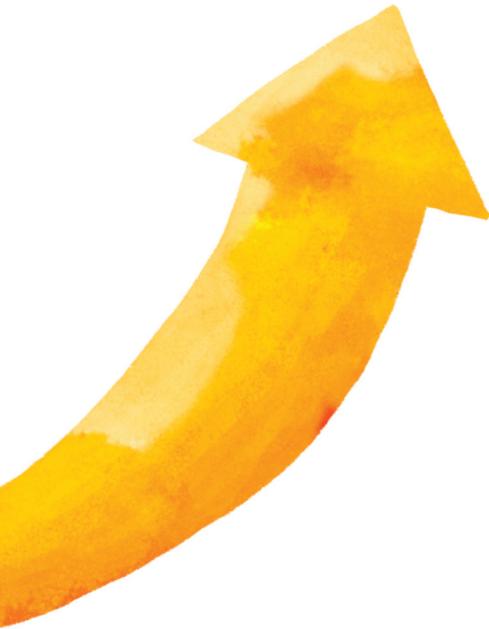
COMMUNICATION



CHALLENGE



AUTONOMY



자율 : 자율성을 부여하라

이제 더 이상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직원들이 매사 리더의 통제에 따라 움직인다면 기계나 다름 없다. 이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직원들은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1980년에 설립돼 2010년 기준 매출액 90억 달러, 직원 수 1만 5천여 명에 북미와 영국 지역에 3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을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인 존 매키(John Mackey)의 업무 위임 방식은 독특하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어떻게 140명의 계산대 직원이 한 팀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거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큰 팀이라면 기본 운영 원칙에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들은 분명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 방식이 뭔지 나도 궁금하네요.”

완벽한 식품(Whole Foods), 완벽한 직원(Whole People), 완벽한 지구(Whole Planet)라는 기업 모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홀푸드마켓은 직원들을 전적으로(Whole) 신뢰하며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심지어 팀원을 채용하는 것도 직원들의 몫이다.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비탕에는 바로 이러한 자율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 **소통 : 시끄러운 조직이 성공한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회사를 꿈꾼다. 아무런 마찰 없이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조용한 회사, 그러면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꿈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그런 회사는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지친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런 회사를 꿈꿀 수는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는 없을 뿐더러 역설적이게도 좋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더 시끄럽다. 다시 말해 시끄러운 조직이 성공한다는 말이다.

기계 부품은 마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조용하고 오래간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마찰이 없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긴 해도 마찰은 이로움이 많다. 마찰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용한 조직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이며 수면 아래 수많은 문제점들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직이 조용하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소통의 문화를 잘 가꾸어가는 기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을 들 수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회장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변에 반대자가 많

으면 흐뭇하게 생각하고 9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엔 그 아이디어를 폐기해 버린다. 누구나 쉽게 동의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쓸모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윈 회장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권장한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회의할 때 특이한 언성이 높아지곤 한다.

●●● **도전 : 실패를 장려하라**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아닌 약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앞서가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오히려 실패를 장려하고 그러한 실패 사례를 자산화한다는 것이다.

혼다(Honda)는 매년, 그 해에 가장 큰 실패를 한





글 | 박 숙 철 (CnE혁신연구소장)

1975년 LG전자에 입사하여 3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팀장, 품질보증팀장, 조직문화팀장, 경영혁신팀장, 생산팀장 등을 거쳤다. 2001년 말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LG그룹 차원에서 운영된 LG혁신학교의 교장을 맡아, LG그룹 계열사의 모든 임원과 핵심 리더들을 교육했다. 경영혁신 전반에 걸친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면서 주요 행사의 기조 강연 연사로 초빙되는 등 연간 100회 이상의 국내외 강연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레이트 피플》, 《Hello 멘토》, 《경영 2.0 이야기에서 답을 찾다》 등이 있다.

연구원을 '실패왕'으로 정하고 100만 엔 가량의 격려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 '실패왕' 제도는 자신의 성공을 '99%의 실패에서 나온 1%의 성과'라고 정의한 혼다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郎)의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실패를 장려하는 혼다의 기업문화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넘어 제트기와 가장 진보한 로봇인 아시모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W. L. Gore & Associates)의 성공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 고어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를 실행

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마칠 때는 실패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성공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삼매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한다. 성공이나 실패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시도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패를 훈련시키기까지 한다. 구글의 인사담당 부사장으로서는 40여 개국의 구글 소속 임직원 5만 명을 책임지는 리즐로 북(Laszlo Bock)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글의 문화와 관련하여 이렇게 밝혔다. "구글은 실패의 낙인 효과(Stigma Effect)를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풀 수 없는 과제를 준다. 그러면 뛰어난 인재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다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결국 실패한다. 하지만 그 뒤 이들은 자

신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님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훈련을 통해 실패에 대한 내성(耐性)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조직문화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조직문화의 영향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붕괴 위기에 처한 IBM의 구원투수 루이스 거스너(Louis V. Gerstner, Jr.)가 조직문화 변화에 치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10년 가까이 IBM에 있으면서 나는 문화가 승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승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경영 시스템이건 올바른 비전, 전략, 마케팅, 재정 운용을 통해 바른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한 동안은 잘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 DNA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현대에서 근대를 만나다
'빛과 그림자'의 도시

군산



무녀도, 선유도 등 63개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고군산군도,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방조제, 철새들의 낙원 금강. 군산은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여행객을 유혹한다.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로 선택되기도 한 군산은 적산가옥(敵産家屋)이 즐비한 근대문화역사의 산 고장이기도 하다. 군산에서 촬영된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의 제목처럼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밝은 미래와 일제 강점기의 근대모습을 간직한 어두운 과거는 이 도시의 보편적인 페르소나이다. 여행지로서의 군산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도시이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금지 푯말 대신 주차할 때 주의를 해 달라는 문구를 내거는 따스함이 있는 도시, 군산으로 떠나보자.

군산에서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근대문화유산, 적산가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독 군산에 일본식 가옥이 많은 것은 어째서일까? 군산은 기름진 곡창지대이자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훌륭한 어업지역이었고 110년 역사의 무역항만이 있어 곡물과 귀한 보물을 나라 밖으로 빼내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대지주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일제 수탈의 아픔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기쁘고도 서글픈 광복 70주년에 여행을 통해 근대의 생생한 역사를 읽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이 있을까? 군산은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한 듯 근대 역사를 간직한 가옥과 건물들이 즐비하다. 임피역의 시계탑에는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시실리)'이라고 새겨 놓았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군산 곳곳이 '시실리'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근대사 앞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착각에 빠진다.



1 적산가옥은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이나 건축물을 일컫는다. 사진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다. 2 옛 철길마을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철길마을의 벽화 3 동화 속 집을 찾아낸 듯한 신비스러움을 주는 이영춘 가옥



웃으며 걷고
되새기며 서다
적산가옥과
근대문화역사거리

여행은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시작한다. 근처에 많은 적산가옥들이 아직도 견재하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이거리의 노른자다. 일제 강점기에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던 '히로쓰리'는 일본인이 살았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건물은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주변 근대역사거리에는 명화극장 건물과 일본양식이 남아있는 가옥들이 친근한 골목과 어우러져 눈을 즐겁게 한다. 박물관 옆에는 '장미 갤러리'가 있다. 무료개방되어 있고 하반기 화백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 건물도 적산가옥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대문화거리와 근대역사박물관 일대는 걸으며 쉬며 꼬박 하루를 소요해야 한다.

※ 근대문화거리 주변 볼거리 : 근대 건축관, 미즈커피((구)미즈상사), 장미 공연장, 군산 세관, 중화요리식당 빈혜원 등



4 신흥동 일대 골목은 근대역사의 산 전시장이다.

5 옛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한 작품들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임피역

여행 이틀째는 번두리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본다. 근대문화 역사거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경암동 철길마을이 있다. 1944년 신문용지 제조업체의 생산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철도다. 집 사이를 열차가 지나다닐 때는 속도를 늦춰 주민들을 배려했다. 2008년 통행을 멈춘 이후 고즈넉하게 남은 마을 풍경은 군산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구멍가게에서는 여행객의 구미에 맞게 옛날의 군것질, 장난감, 문구 등을 구입할 수 있고 교복이나 교련복 등을 대여하여 추억 갖든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어 다시 10여 분을 차로 이동하면 '이영춘 가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큰 농장주였던 '구마모토'라는 일본인의 소유였는데, 이후 이영춘 박사가 거주했던 것을 기념해 공식명이 되었다. 군산간호대학교 캠퍼스 뒤편에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나?'하는 걱정을 할 때쯤 학교 건물 뒤편으로 살며시 입구가 나타나 동화 속, 비밀의 성을 찾은 듯 반가움을 준다. '이영춘 가옥'은 가장 보존이 잘 된 적산가옥 중 하나이며 내부도 공개가 되므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200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근처의 발산초등학교는 1903년 '시마나타'라는 일본인이 운영한 농장이 있던 곳이다. 농장의 창고는 유적들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금고처럼 만들어 놓았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리 예술 유적을 모아 뒀다가 해방 후 남겨 두고 떠났다. 학교 뒤편이 일제 수탈의 현장이라니, 이색적이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새롭다.

군산의 동부에 위치한 임피역은 1912년에 지어져 서울역보다 13년이나 앞선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임피(臨陂)라는 지명은 바닷물을 막기 위한 방죽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퇴역기차가 전시관으로 단장되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역앞은 작은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김밥이나 간단한 간식을 싸가서 즐길 장소로도 훌륭하다.

군산은 생각보다 넓다. 외곽을 돌 때는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 다행히 시티투어버스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앞서 소개한 외곽지역은 물론이고 금강철새조망대, 동국사, 채만식문학관 등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어 편리하다.



영화를
찾아라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초원사진관이 있다. 오래된 건물에 촌스런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이 반갑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1998)’의 주인공들(한석규, 심은하)이다. 초원사진관은 실제 사진관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어져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런 사실이 아쉽다면 근처에 걸어 5분 거리에 ‘월명사진관’이라는 아주 오래된 진짜 사진관을 찾아 나서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힌트를 주자면 초원사진관에서 신홍동 일본식 가옥이 있는 방향이다.

| 촬영지 | 대표적인 촬영작 |
|-------------|--|
| 근대문화역사거리 일대 | 8월의 크리스마스, 말죽거리 잔혹사, 화려한 휴가, 아저씨 등 |
| 경암동 철길 마을 | 남자가 사랑할 때, 마더, 소년 천국을 가다, 홀리데이 등 |
| 해방동 일대 | 오래된 정원, 핑크, 스캔들 등 |
| (구)군산의료원 |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간 큰 가족, 말아톤, 남자가 사랑할 때 등 |
| 군산항 일대 | 싸움의 기술, 타짜, 마파도, 공공의 적, 변호인 등 |
| 신흥동 일본식 가옥 |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청연, 타짜, 라디오데이즈, 범죄와의 전쟁 등 |
| 새만금 고군산 군도 | 용서는 없다, 최종병기 활, 군도 등 |
| 이영춘 가옥 | 장군의 아들, 동감, 모래시계, 아인시대 등 |
| 군산교도소 | 광복절특사, 친절한 금지씨, 남자가 사랑할 때, 신세계 등 |



6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잇게 하는 초원사진관 7 실내는 영화의 모습들을 느끼게 한다. 8 (구)미즈상사 건물이 적산가옥의 가치를 그대로 살려 카페가 되었다. 9 카페 레나타의 폴란드 도자기 액세서리 10 쌍용반점의 대표메뉴 짬뽕



8



9



10

군산은 맛있어

군산은 짬뽕과 중화요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전국 4대 짬뽕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복성루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이 푸짐히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있는 빈해원은 군산에서 가장 역사가 깊어 가게 건물 자체가 근대 역사를 보여준다. 쌍용반점은 군산항에 인접해 있어 눈도 함께 즐겁다. 푸짐한 조개로 맛을 낸 시원 칼칼한 짬뽕이 특징이다. 다만 주말은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여행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듯하다. 평일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

이성당과 영국빵집은 단팥빵과 야채빵이 맛있다. 이성당은 아침부터 줄을 서야 대표 빵을 맛볼 수 있다. 중동호떡은 3대째 이어오는 전통 있는 간식으로 꿀소가 흐르지 않고 작은 쟁반 같은 접시에 담아 나와서 먹기 좋고 맛있다. 분위기와 맛을 동시에 즐기려면 화덕 피자 전문점인 '파라디소 페르두또'에 가봐야 한다. 매니저에게 추천 메뉴를 부탁하면 친절할 응대를 받고 파스타와 피자를 즐길 수 있다. 은파호수공원의 절경은 덩이다.

근대역사박물관 앞의 미즈커피는 일제 강점기에 무역회사 미즈상사의 건물을 그대로 살려놓은 적산가옥이다. 2층 다다미방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군산 미즈커피만의 특색이다.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카페 '레나타'가 있다. 비스듬한 지붕에 아담하지만 분위기가 있는 단독건물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내부는 아기자기한 폴란드산 핸드메이드 그릇들로 가득하다. 커피도 예쁜 폴란드 찻잔에 플레이팅 되어 나온다. 걷다 쉬어갈 즈음 레나타는 단언컨대 따뜻한 휴식이다. 🌈

군산 여행 도우미

군산시티투어 - 063-446-7387 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스마트 검색 - 군산여행가이드 <http://ingunsan.com>

애플리케이션 - 달팽이(군산시 공식 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갑시다 -2탄-

지난 호 <별을 쏘다> 제5호를 통해 안내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에 이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그리고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1.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제7조)

2.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증감청구 요건

- 차임약정시와 증감청구시에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것.
- 청구시 종래 약정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것.**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
- **증액청구의 금지약정이 없을 것.**

3. 증액한도·시기

-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임대차계약이나 차임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법시행령제8조)
- ②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당금액 반환청구할 수 있다. (동법제10조의2)

4. 효과

당사자의 증감청구가 있고, 그 청구 및 청구액이 적정한 경우, 청구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차임의 변경이 생긴다.

“보증금의 반환등”

계약의 종료시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불가분의 관계로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물 훼손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기능과 차임 연체시 차임에의 총당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동법제3조2)

사례로 풀어보는 Q & A

Q 2013년 1월 1일 보증금 400만 원 / 월세 25만 원 / 1년 계약 후, 만료 1개월 전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이 현 시세와 차이가 난다고 5%의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일 때, 증액청구기간산정시점이

① 당초 임대차계약시점일까? ② 자동연장된 갱신 시점일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1년의 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임대차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보증금을 증액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차임증액청구는 가능하다.

따라서, ①의 당초 계약한 2013년 1월 1일부터 임대차기간은 산정되며, 그 기간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가능하다. 

5%
차임증액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의 유명한 말이다.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실천 하지 않아도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동료, 가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도 당신은
안전한가요?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1

1번의 대형사고

1 : 29 : 300

법칙

29

29번의 작은사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

1:29:300 법칙은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 (H.W.Heinrich)가 약 5,000건의 사고를 검토하여

알아낸 법칙이다. '1:29:300 법칙'에 의하면 중상사고

1건이 발생할 경우 이미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아차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아차사고는 결국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각종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원인의 누적으로 인한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는 경미한 사고를 놓치지 않고, 아차사고에 철저히 대응하며

또다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300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Case

1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졸음운전을 할 경우 시속 100km/h로 주행 시,
2, 3초의 짧은 순간에도 100m 이상을 질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사고의 사망률이 2.1%이고,
졸음운전사고의 사망률은 4.3%로 두 배 이상 높다.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번쯤 졸음운전을 경험했을 것이다.
'깜빡 졸았구나, 조심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하인리히 법칙 중 300, 아차사고에 해당한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되는 졸음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Case

2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삼풍백화점도 실제로 붕괴되기 전
내벽에 금이 가는 균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에는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고
기둥과 옥상 슬래브 쪽에서 각종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이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풍백화점은
폭파 해체된 것처럼 붕괴됐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초유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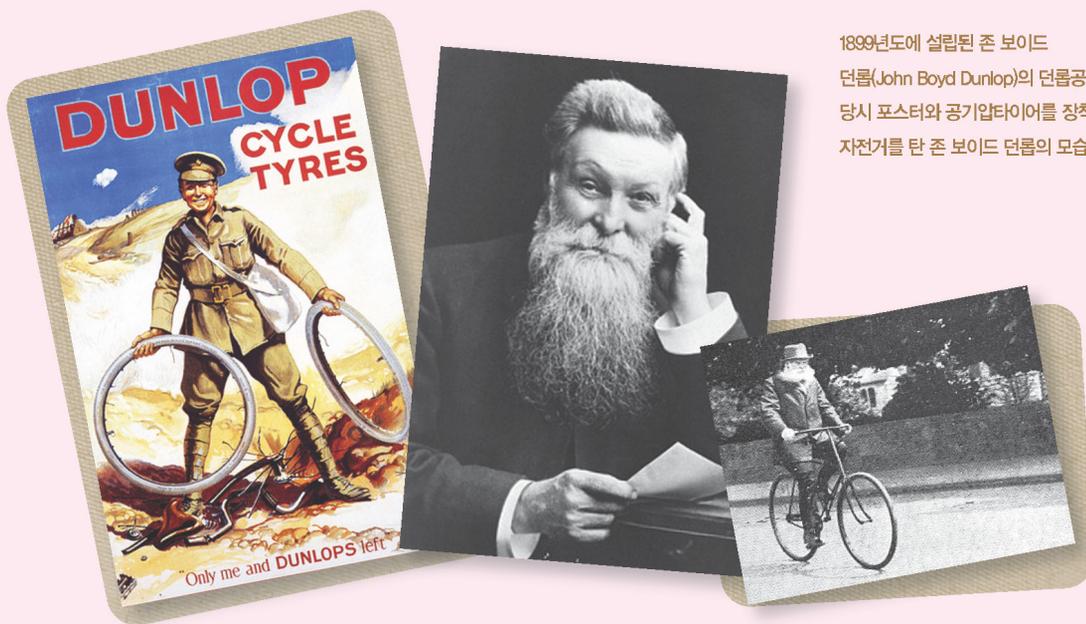
여러분은 혹시 오늘 '경고'를 받지 않으셨나요?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재난, 사회, 개인적인 부분 어디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Good Idea, Good Invention, Good Safety

자동차가 발명된 지 130여 년,
그동안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변화되었다.
번뜩이는 생각은 곧 인류의 발명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중 3가지의 발명을 꼽아 소개한다.

사진 출처 car chosun 신문, 불보자동차, 네이버캐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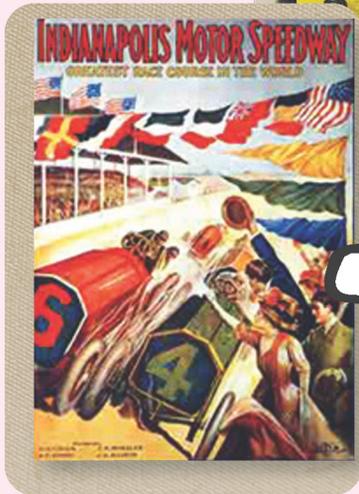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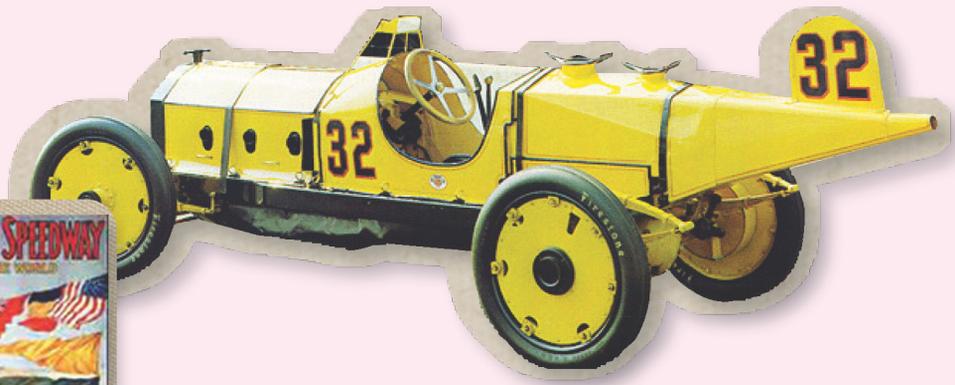


1899년도에 설립된 존 보이드
던롭(John Boyd Dunlop)의 던롭공기타이어회사
당시 포스터와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를 탄 존 보이드 던롭의 모습



공기압 타이어

자동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해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압 타이어는 언제 발명됐을까? 공기압 타이어가 발명되기 전에는 바퀴를 쇠나 나무로 만들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 했다. 1888년 영국의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John Boyd Dunlop)은 아들이 자전거만 타면 두통을 호소하자, 보다 안정적인 자전거 바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축구공에서 영감을 얻은 던롭은 바퀴에 고무를 붙이고 펌프로 공기압을 넣었다. 1899년 던롭은 '던롭공기타이어회사'를 설립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895년 프랑스 회사 미쉐린(Michelin)이 던롭 타이어를 응용한 자동차 타이어도 개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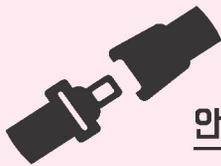


1911년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 (Indianapolis 500-Mile Race)' 대회 포스터와 당시 대회 참가자인 레이 하룬(Ray Harroun)이 최초로 백미러를 장착한 1인 레이싱카의 모습

리어 뷰 미러 (rear view mirror)

일명 백미러 (back mirror)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Indianapolis 500-Mile Race)'는 1911년 처음 개최되었는데 이때 최초의 '백미러'가 등장했다. 기존의 자동차경주에서는 운전자와 함께 꼭 조수석에 정비공이 동승해야 했다. 이때 정비공은 정비 외에도 자동차 뒤쪽 상황을 알려주는 '백미러' 역할도 함께 했다. 1911년 열린 '인디 500' 레이스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규칙이 내걸렸다. 2인 동반이라는 의무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카레이서 레이 하룬(Ray Harroun)은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정비공 없이 홀로 경주를 하기로 결심한다. '정비공 없이 자동차 뒤쪽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레이 하룬은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힌트를 얻어 운전대 앞에 거울을 달아 정비공 없이 후방 상황을 보며 당당히 인디 500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레이 하룬은 인디 500의 최초 우승자이자, '백미러'와 더불어 '인 레이싱카'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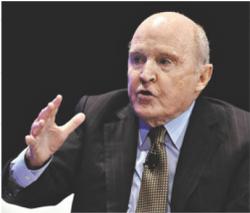


안전벨트

자동차 안전벨트 또한 자동차 경주에서 처음 시작됐다. 카레이서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벨트를 만들었다. 이것이 비공식적인 자동차 안전벨트의 시작이다. 공식적으로는 1936년 스웨덴의 볼보 직원이 최초로 자동차 경주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49년 미국의 내쉬 자동차를 시작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비행기에서 사용되고 있던 2점식 안전벨트를 가져와 자동차에 응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안전벨트는 선택사항이었고, 2점식 안전벨트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머리, 가슴에 충격을 많이 받아 위험이 따랐다. 우리가 흔히 보는 3점식 안전벨트는 스웨덴 볼보의 직원이었던 닐스 볼린(Nils Bohlin)이 최초로 개발했다. 닐스 볼린은 원래 스웨덴 사브에서 비상탈출 좌석을 개발한 항공사였다.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 안전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닐스 볼린을 채용했고, 마침내 1959년 8월 13일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안전벨트는 지금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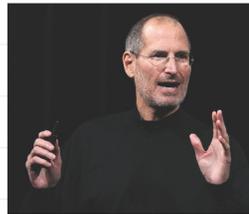


잭 웰치 Says
“핵심을 전달하고 반복하라”

GE(제너럴일렉트릭)의 최고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최연소의 나이로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성과보고 및 제안 등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켰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키려면 “핵심 가치는 적어도 700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라”고 강조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청중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간결하면서도 쉽고 명확하게 핵심을 말하면서, 일정 시간 내에 반복해 말해준다면 그 핵심을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Q.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프레젠테이션 잘해서 제 기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독창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자료의 핵심만을 보기 쉽게 시각화해야 할 것이고, 또 발표를 정말 잘해야겠죠. 이 원칙을 전제로 일명 ‘프레젠테이션 고수’라 불리는 이들의 방법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스티브 잡스 Says
“호기심을 자극하라”

세계적 기업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이 잊지 못할 순간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처음 공개할 때, 서류봉투에서 제품을 꺼내 들었다. ‘이 제품은 그만큼 가볍고 얇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품의 장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절한 연출을 한 것이다. 때로는 이런 연출이 청중에게 강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Says
“청중의 입장에 눈높이를 맞추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연설은 청중의 귀를 울린다. 강한 어조가 아님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청중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알아들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여라’는 식이 아니다. 덧붙여 청중들의 호응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다. 마치 청중과 대화하듯 소통하면서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Says
“비언어적 소통에 신경 써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항상 모든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며, 목소리 톤, 손의 움직임도 부드러우면서 어색하지 않다. 자신에게 맞는 손동작, 자세 등을 연구해 둔다면 더 자신감 있게 보일 것이다. 



당신의 소통 유형, 진단해드립니다

가끔 혹은 매번, 불통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소통법부터 파악해 보아야 한다. 다음 테스트를 통해 나는 어떤 유형의 커뮤니케이터인지 점검해보자.

| | | | |
|--|--|--|--|
| <p>①</p>  <p>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건넸을 때, 반응이 냉담했던 적이 있다.</p> <p>Yes ▶ ②번으로 No ▶ ⑥번으로</p> | <p>②</p>  <p>“너의 칭찬에는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다.</p> <p>Yes ▶ ③ No ▶ ⑥</p> | <p>③</p>  <p>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사이가 멀어진 경험이 있다.</p> <p>Yes ▶ ④ No ▶ ⑤</p> | <p>④</p>  <p>땀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상대의 눈도 맞추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p> <p>Yes ▶ ⑨ No ▶ ⑧</p> |
| <p>⑤</p>  <p>직장에서 혹은 자주 보는 지인들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3명 이상이다.</p> <p>Yes ▶ ④ No ▶ ⑦</p>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477 839 762 1170"> <p>A형 짹짹
당신은 소통 왕</p> <p>당신은 주변 상황과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 그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전달하는 법도 알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 갖추고 있어 주변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주머니 받거나, 술술 풀리는 대화가 즐거운 당신은 소통 왕.</p> </div> <div data-bbox="785 839 1070 1170"> <p>B형 소통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는
노력형</p> <p>소통을 위해 메시지에 노력하고 있는 당신. 업무 보고, 기획 발표 등 소통이 필요한 일에 제각각인 당신은 상사 입장에서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지만, 가끔 독단적인 소통으로 부하 직원이나 동료와의 소통에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data-bbox="477 1191 762 1512"> <p>C형 알쏭달쏭, 소통에 대한 감이 부족한
일방통행형</p> <p>상대방의 상황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한 당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p> </div> <div data-bbox="785 1191 1070 1512"> <p>D형 당신은
불통의 아이콘</p> <p>대화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은 이미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p> </div> </div> | <p>⑥</p>  <p>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말을 끊으며 바로 질문하는 편이다.</p> <p>Yes ▶ ⑤ No ▶ ⑦</p> | |
| <p>⑦</p>  <p>자신의 의견이나 기획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했을 때 상대방이 빨리 이해하는 편이다.</p> <p>Yes ▶ ⑫ No ▶ ⑧</p> | | <p>⑧</p>  <p>하려는 말의 짜임새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본 후 말하는 편이다.</p> <p>Yes ▶ ⑨ No ▶ ⑫</p> | |
| <p>⑨</p>  <p>동료, 가족, 친구에게 요구사항을 전했다 때, 자신이 의도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p> <p>Yes ▶ ⑩ No ▶ ⑪</p> | <p>⑩</p>  <p>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p> <p>Yes ▶ ⑪ No ▶ B형</p> | <p>⑪</p>  <p>최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p> <p>Yes ▶ D형 No ▶ C형</p> | <p>⑫</p>  <p>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대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p> <p>Yes ▶ ⑩ No ▶ A형</p> |



다시 한번, 바다 위를 달리다

광안대교 일대에 열린 제14회 부산바다하프마라톤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총 40여 개국에서 참가했으며 참가 인원은 1만 5천 627명이다.
그중 성우가족은 1천 4백여 명으로 9년째 최다 참가를 기록했다.
성우인들의 노사 화합은 물론 가족에까지 물씬 풍기는 마라톤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금형개발사업본부



보전2팀 백성구 과장



IT지원팀 유한종 사원



개발2팀 **진준엽** 과장



자재팀 **김동훈** 사원



인사노무팀 **박재우** 과장



물류2반 **유승철** 기장



선행기술팀 **송문종** 과장



제작팀 **백지용** 대리



생산관리팀 **김세주** 대리



영업관리팀 **김태균** 과장



공법계획팀 **김현균** 과장



중국 염성·우즈 성우 연수생



생산관리팀



2015 한마음 소통 야유회

“힐링하고 가자!”

성우가족들은 10월 중, 팀(반)별로 추계 야유회를 떠났다.

이번 야유회는 '소통 성우'의 일환으로 성우인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평소 가고 싶었던 여행지나 팀(반)원들과 하고 싶었던 야외활동을 자유롭게 정하며,

가을 소풍 떠난다는 기분으로 야유회를 준비했다.

드디어 소풍 당일! 가을날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각각 다른 장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성우인들의 하하 호호 떠들썩한 야유회 사진을 공개한다!

노동하기 좋은 날씨로구나



영업관리팀 & 물류1, 2반

영업관리팀은 범어사를 시작으로 금정산 고당봉에 이르는 코스로 등산을 하며 야유회를 즐겼습니다. 영업관리팀뿐만 아니라 물류1, 2반의 주간반, 야간반이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날이었고,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행을 마친 후, 금정산성의 한 식당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잊지 못할 힐링시간이었습니다.



금형개발사업본부

금형개발사업본부는 그동안 힘들고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 위해 금정산을 찾았습니다. 전날 정성스레 준비한 김밥과 두부김치, 막걸리를 들고 범어사 주차장부터 복문까지 1시간가량을 등반했습니다.

등반 후, 가을바람을 담아 마셨던 막걸리 한잔은 근심과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었습니다. 하산 후 있었던 족구경기와 장기자랑으로 분위기 UP! 이번 야유회는 속 시원하게 소통하고 힐링했던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기계반

화장한 날씨, 정관에 위치한 병산으로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이진수 반장의 철학에 따라 기계반은 몇 년 전부터 야유회에 가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자주 볼 수 없어 아쉬웠던 마음을 족구공에 담아 뽕뽕 날려버릴 수 있었던 야유회였습니다.



사상반

기장군 일광면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장이장 산을 오르는 구본신 조장, 김대욱 기장의 세 살배기 아들들을 보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등산 후에는 바다가 보이는 횡집에서 푸짐한 회를 먹으며, 사상반의 우애를 다진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빵야 빵야 다 김작사라



경영기획팀

저희는 1박 2일 동안 경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팀 전체 인원이 다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모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서바이벌게임을 하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즐겁고 웃음으로 가득했던 야유회였습니다.

네 마음도 낚을거야



아산기술팀 장비보전반

이른 새벽, 장비보전반은 만선의 꿈을 안고 태안으로 떠났습니다. 주꾸미 낚시 배에 오른 반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강태공이 되었고, 주꾸미를 척척 낚아 올리는 반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즐겼던 야유회는 반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격하게 놀고싶다...

보전2팀 & 공정기술반

가을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화창한 날, 보전2팀원과 공정기술반원들은 대운산 자연휴양림 근처에 있는 산장에서 야유회를 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 야유회를 통해 사무직과 공정책임자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자녀들도 함께해 더 즐거운 야유회가 되었습니다. 내년 야유회도 기대하며~ 보전2팀&공정기술반 Let's go!!!





선행기술팀

선행기술팀은 부산 온천지역에서 수영교까지 왕복 20km 자전거 라이딩을 실시했습니다. 먼 거리를 함께 라이딩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기다려주거나 소통이 힘든 사람을 격려하여 대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단체 라이딩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사정보사업본부

인사정보사업본부는 1박 2일 동안 '한미음 소통 아우회'라는 이름으로 양산 배내골을 찾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바비큐 파티로 대화의 장이 열렸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릴 수 있는 흥겨운 노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세대와 직급을 뛰어넘어 한껏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을 즐기고 왔습니다. 이번 아우회의 콘셉트에 맞는 '소통'과 '힐링'을 모두 이루어 낸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산인사총무팀

아산인사총무팀은 '창의, 혁신, 소통'을 목표로 전 인원이 모여 대청호수에 자리 잡고 있는 청남대에 다녀왔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통령 전용별장 청남대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웃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창의력이 더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경직된 업무환경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 돌아온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후원



제20회 부산바다축제의 강렬한 서막을 알린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5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8월 2일 저녁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수십만 명의 피서객과 함께 해운대 밤 바다를 뜨겁게 달군 열린바다 열린음악회는 부산바다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음악 콘서트이다.

뮤지컬 배우 정상훈의 진행으로 가수 이정, 소찬휘 등이 출연하며 두 시간 동안 한여름 밤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성우 안전365 결의대회 개최



당사는 9월 1일 국내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 안전365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결의대회는 성우가족이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안전환경팀에서 안전상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성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안전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생산성에 치우쳐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기 위한 전체 성우가족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직원들은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다짐하였다.

아산성우,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 준우승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양 백서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고용노동부장관 기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직장인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충남족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청양군이 후원하였으며 총 8개부 156팀 1,3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아산성우하이텍 사내 동호회인 '아산성우 족구단'은 전국 직장부에 배정되어 뛰어난 실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2015년 사무직 승진자 교육 실시



당사는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및 해외법인 주재원을 포함한 2015년 사무직 승진자를 발표하며 과장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승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남 통영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한 본 교육은 '경영전장에서 만나는 이순신 리더십과 혁신정신'을 테마로 이순신으로부터 배우는 경영의 지혜 및 승진자가 갖춰야 할 변화와 갈등관리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3회 그린성우 나눔한마당' 개최



이웃과 지역을 돌보고 동료애를 나누는 '제13회 그린성우 나눔한마당'이 10월 8일 정관 좌광천 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콘서트'는 축하 세레모니와 야외 맥주 파티, 전통 야시장, 축하공연과 장기자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문용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료의 아픔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다. 성우가족의 도움으로 모금된 수익금은 관내 불우이웃 및 불우 사우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5년 신입/경력 공개채용 진행



당사는 새롭게 단장한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swwhitech.com>)를 통해 2015년 신입/경력 공개채용을 알렸다. 재경, 경영기획, 총무/안전, IT지원의 기획관리직군과 R&D의 연구개발직군, 그리고 품질, 개발, 금형개발, 개발의 생산기술직군으로 구분하여 관리직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금형제작 현장기술직(공정책임자)도 10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지역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설명회도 개최하였다. 부산 서부지역권은 10월 13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 동부지역권은 10월 14일 부산대에서, 부산 남부지역권은 10월 15일 부경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하며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찰나의 순간이 겹겹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의 순간, 순간에는

가족, 동료, 행복, 사랑

그리고 위로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를 잇습니다.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SUNGWOOHITECH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